
		보 도 자 료		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	
		배포일자	2021년 2월 22일(월) 총 3매		
담당 부서	인천문화 예술회관	담당자	• 기획운영팀장 이동선 ☎420-2710 • 담당자 정수산나 ☎420-2736		
사진	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
보 도 시 점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

연안부두, 인천국제공항, 답동성당 등
인천의 명소, 합창으로 만나다.
- 인천시립합창단 <미래의 도시, 인천> MV 유튜브 채널 공개 -

- 인천광역시(시장 박남춘)는 인천시립합창단(예술감독 김종현)에서 세계적 문화도시로 더욱 성장할 인천을 알리기 위한 합창 뮤직비디오를 제작하여, 2월 24일(수) 오후 2시 인천시립합창단과 인천문화예술회관, 인천시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.
- 이번 영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인천을 찾지 못하는 예비 방문객들과 해외 유튜브 구독자들에게 각양각색의 아름다움을 품은 인천의 명소들을 인천시립합창단의 유려한 합창과 함께 담아 소개한다.
- 인천시립합창단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약 10개월에 걸쳐 편곡과 녹음 및 영상촬영을 마쳤으며, 12분에 달하는 뮤직비디오를 완성하였다.
- 해질녘 노을이 인상적인 영종도 선녀바위를 배경으로 합창단원들의

모습이 드러나며 인천을 대표하는 최영섭 작곡가의 ‘그리운 금강산’이 울려 퍼진다. 1961년 분단의 아픔을 담아 작곡한 이 곡은 남북의 평화를 잇는 인천의 역할을 대변한다.

- 이어 인천을 상징하는 항구를 배경으로 1979년 김트리오가 부른 ‘연안부두’가 들려온다. 인천 연고의 스포츠팀 응원가로도 유명한 곡으로 탱고풍으로 편곡하여 보다 깊은 감정을 더한다.
 - 인천대교와 인천국제공항, 송도국제도시 등 활기차고 역동적인 인천의 모습을 펼쳐 보이며 부르는 ‘미래의 도시’는 2014년 인천아시아 경기대회를 홍보하기 위해 작곡된 곡이다. 동북아 중심도시로 발돋움하는 인천의 가슴 벅찬 미래를 표현하고 있다.
 - 영상의 마지막은 2013년 인천 정명 600년을 기념하며 만든 ‘인천 아리랑’이 장식한다. 답동성당과 차이나타운, 개항장거리 등을 고즈넉이 담아내며 인천의 역사적 흔적과 감동의 순간을 합창으로 재탄생시킨다.
 - 인천시립합창단 김종현 예술감독은 “〈미래의 도시, 인천〉 뮤직비디오 제작은 음악도시 인천의 정체성과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작업이었다”며 “이 영상이 인천 시민들의 문화적 자긍심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. 코로나19가 종식된 후 더 많은 사람들의 인천에 찾아와 이 도시의 매력을 알아봐주셨으면 좋겠다.”고 소감을 밝혔다.
- 문의) 인천시립합창단 032-420-2784

<붙임> 관련사진

< 미래의 도시, 인천 뮤직비디오 >



<미래의도시, 인천> MV 캡처



<미래의도시, 인천> MV 캡처



<미래의도시, 인천> MV 캡처



<미래의도시, 인천> MV 캡처



<미래의도시, 인천> MV 캡처